

# 정보통신 신기술기반 벤처기업 육성방안 연구

- 금융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최선규\* · 김경환\*

\*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경영학부

## Abstract

### 1. 서 론

정보통신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기술집약적이며, 지식집약적인 산업이다. 벤처의 정의대로 도전하고 개척할 분야가 무한하며, 이러한 분야의 신기술을 가진 사람이 이들 시장에 진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용이하다. 정보통신산업은 성장산업으로서 기술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기술변화가 심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구현하고, 기술개발 및 응용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정보통신 신기술기반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정보통신 신기술기반 벤처기업의 개념정의를 하고 이의 육성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어서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에서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적용방안을 모색한다.

### 2. 정보통신 신기술기반 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이 무엇인가는 명확한 개념정의를 없으며 특히 정보통신신기술기반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이란 고부가가치기업, 모험기업, 신기술기업, 기술집약기업, 지식집약적 중소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하이테크기업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정성적으로 정의해보면 벤처기업이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추구하는 모험심이 강한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성적 정의외에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벤처기업은 소수의 핵심적기술 창업인들이 기술혁신의 개발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기술 또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신생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벤처기업은 기존의 중소기업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높은 기대수익과 함께 높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해 벤처캐피탈이라는 특수한 자금원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벤처기업의 특성이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1980년대 초에 삼보컴퓨터, 큐닉스 등이 컴퓨터 관련사업을 시작한 것이 효시라고 할수 있으며 이후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벤처창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규모에 관해 벤처기업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1994

년에 1000여개였던 벤처기업이 1996년에는 벤처기업의 수는 1천5백개로 증가하고 여기에 고용된 종업원수는 7만명 정도로 이들의 매출액규모는 약9조2천억원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벤처기업의 창업분야는 정보기기,통신기기의 부품산업과 소프트웨어 정밀기기 분야에서 활발하다.

### 3. 해외의 신기술기반 벤처기업 육성정책

미국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고 고용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담당부서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이다. 이러한 미국 중소기업청의 주요 업무는 자금지원, 경영관리지원, 출판사업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자금지원은 첨단산업자금지원으로 SBIR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프로그램, 공적벤처캐피탈에 의한 자금지원으로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프로그램, 그리고 채무보증 및 소액융자 등이다. 또한 보증대출로 자금 지원하는 7(A)프로그램이 있다. 그밖에 경영관리지원으로는 SCORE(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 SBDC(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가 있다.

일본은 아시아권에서 비교적 일찍부터 벤처기업을 육성시켜왔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기업의 도산과 폐업이 급증하였다. 1994년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많은 업종이 다소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폐업률이 창업률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한 벤처기업을 폐업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벤처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1995년부터 '중소기업창조활동촉진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은 금융, 세제, 인력 등 다방면에서 벤처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산업전략을 입안하여 성공하고 있는 국가의 하나이다. 60여개의 벤처캐피탈이 활동하면서 벤처기업의 투자와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벤처산업 지원정책은 아이디어 및 기술보유자의 창업유도를 위한 기술인큐베이터 계획과 이들의 창업성공을 도와주는 공적 벤처캐피탈 펀드와 외국 투자자본유치로 크게 대분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탈은 지난 85년에는 1개회사,펀드조성규모도 2천9백만불 수준에 불과했다. 그후 국영벤처캐피탈인 Yozma Venture Capitals. Ltd를 1993년에 설립하고 이스라엘 정부의 벤처산업 육성정책과 민간 벤처 캐피탈회사의 등장,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의 외국자본 유치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의 대거유입으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1998년 현재 국영캐피탈회사 및 민간캐피탈회사를 비롯하여 35개의 벤처캐피탈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펀드규모는 총13억불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스라엘 벤처캐피탈사의 투자형태는 단순자금투자에서 벗어나 경영, 마케팅자문, 기타 경영관련 지원 등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대만은 2차세계대전 이후 희소한 부존자원과 국내시장의 협소함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 아시아권에서는 비교적 선두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한 경쟁우위가 약화되기 시작하여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에서 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의 전환은 막대한 자본투자가 필요한데 그간의 대만의 금융구조는 고도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통상적인 은행에 국한되어 있고 신기술에 기반을 둔 벤처기업의 자금공급은 위험성으로 인하여 서로 회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만정부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모델을 참조하여 1983년 벤처캐피탈에 의한 법률이 입법화되었고 1985년과 1987년에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법을 개정하여 본격적인 신기술기반사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 4. 우리나라 정보통신 벤처기업 금융지원현황과 개선방안

벤처산업발전의 모델로 인정받는 미국의 경우, 성장단계에 의한 벤처기업의 자금확보방식을 살펴보면 연구개발단계와 창업초기에는 창업자의 자기자본과 개인투자자의 엔젤투자에 주로 의존하고 도약기에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자금을 확보하며 장외시장 등록 또는 주식거래소시장에 상장한 후인 안정기에 들어서면 자본시장과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의 용자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는 달리 벤처기업의 창업초기에는 주로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의해 자금확보를 하는 원시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최근 엔젤클럽의 결성과 벤처캐피탈의 벤처기업과 개인투자자와의 연결 등 엔젤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해 지고 있으나 투자자금의 규모에 있어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창업초기의 벤처기업들은 벤처캐피탈의 투자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고 담보부족 등의 문제로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의 용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장기의 자금확보에서는 벤처캐피탈에 의한 자금지원이 투자보다 용자에 치우쳐 벤처기업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1997년에 실시된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벤처기업중 자금조달에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융자 지원을 받은 업체는 70.4%로 비교적 높았으나 기업규모와 매출액규모로 보면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은 빈도가 낮고 규모가 클수록 지원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창업초기의 영세한 벤처기업일수록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도가 낮아 이들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문제점을 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자금조달방식은 자기자본(벤처캐피탈회사의 투자금 제외)이 44.8%로 가장 비중이 높은 반면 벤처캐피탈회사의 투·융자금이 12.9%로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방법의 중심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기술에 기반을 둔 정보통신기업이나 산업의 육성은 우리나라의 향후의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나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육성 역시 바람직한 경제논리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벤처기업에게 자금 및 인력 등 필요자원의 가용성을 높여 효율적인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신기술에 기반을 둔 벤처기업의 육성정책의 기본 목표는 첫째, 벤처캐피탈 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벤처기업에게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둘째, 기술개발투자를 유도하여 기술개발경쟁 및 시장개척을 도모하고 셋째, 코스닥을 중소 벤처기업 직접금융시장으로 개편, 육성하고 넷째, 적절한 유효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과 이를 위한 관련세제 및 법제도의 개선 과 네트워크의 구축을 원활히 하는 것이다.

자금의 최종수요자와 공급자가 상대방에게 적합한 대상을 찾아 자금을 공급하고 수요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자원을 요구할 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함에 따라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일단 자금을 대출받은 자는 당초대출자의 의도와는 달리 계획하였던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비생산적인 투자에 대출자금을 쓰는 도덕적해이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자금지원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킬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벤처기업의 높은 리스크를 여러 당사자간(벤처캐피탈, 보증보험, 벤처기업 등)에 적정한 위험공유를 통해 분산시키는 방법과 벤처캐피탈이나 보증보험회사에게 진실되게 보고할 수 있는 유인부합적인 제도를 강구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